내 이름은 율리시스, 이타케의 왕 !

# 트로이의 목마

QUINTUS CLAPAT

# 트로이의 목마

# 이 이야기엔 어떤 영웅들이 등장할까 ?

## 율리시스

트로이에 맞선 가장 지략이 넘치는 사람. « 청록색 눈의 아테나 여신이 그 옛날 트로이 국에서 영광스런 율리시스를 아껴 마지 않았듯 너를 받아들이기를 » 라고 율리시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메넬라오스는 말했다.

## 디오메데

이름 높은 아카이아 족장 중 한 사람. 아킬레스보다 더 위험한 명예를 얻은 족장 은 아직 아무도 없다. 디오메디라고도 불리는 일리아드의 다섯 번째 노래는 그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다

## 아작스

로크리데의 아작스. 아킬레스의 무기를 두고 율리시스와 다툰 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텔라몬의 아들, « 큰 아작스 »와는 다른 인물. 카산드라를 모독한 죄로 신들의 노여움을 산다.

## 아가멤논

왕들의 왕. 두 명의 아트리드 중 하나이자 메넬라오스와 형제. 미케네 출신. 아카이아의 모든 그룹들을 진두 지휘하는 자. 트로이에 배 1186척을 출정시킨다 !

## 메넬라오스

두 번째 아트리드 . 역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다. 헬레네의 남편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자신의 성에 초대했던 트로이 왕자 알렉산더 파리스에게 아내와 보물을 빼앗긴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구해내기 위해 제일 먼저 나선 인물이기도 했다.

# 아카이아 캠프

## 필록테트

그리스인들이 렘노스 섬에 전부 두고 온 활과 화살을 갖춘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트로이를 점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한 치의 오차 없는 그의 화살을 히드라의 혈관에 담갔다.

## 네오프톨레모스

아켈레스의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 트로이에 맞서 싸워주기를 바라면서 율리시스와 디오메데는 스키로스 섬으로 간다. 아킬레스의 아들은 즉각 운명의 부름에 답한다.

## 칼카스

그리스의 트로이 원정대에 이끌린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내다본다. 그의 신탁은 트로이 전쟁의 중요한 순간마다 적중한다.

## 에페이오스

배 30척을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의 결정적 업적은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 있다. 아테나 여신에게 영감을 받아 3일 만에 목마를 완성했다.

## 시논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할 업적을 세우지 못했으나, 율리시스의 계획에 따라 탈주병으로 가장, 트로이 목마 발치에 웅크려 트로이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 이 이야기엔 어떤 영웅들이 등장할까 ?

## 프리아모스

그가 왕이었을 때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다. 전투에 직접 참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나이어서 참모 역할을 한다고는 했지만 번번이 장남 헥토르의 의견에 끌려다녔다. 그의 이름은 « 팔린 자 » 라는 뜻. 라오메돈의 아들들 중 유일한 생존자로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트로이 국가 전체를 맡겼다.

## 헤카베

프리아모스 왕의 두번째 부인으로 비극적 운명을 살았다. 일리아드에는 그녀가 언제나 장남 헥토르의 용기를 진정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 두번째 아이를 낳기 바로 전 이상한 꿈을 꾼다. 그녀의 가슴에서 횃불이 나와 트로이를 불태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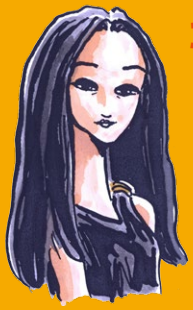
## 헬레네

레다와 틴타레오스의 딸. 제일 아름답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치명적일 정도로 기교적이다. 헬레나를 위해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인들이 피 터지게 싸웠다.

## 데이포보스

« 번쩍이는 투구 »의 헥토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파리스와 알렉산드르가 죽은 뒤 헬레네와 결혼한다. 아킬레우스와의 싸움 도중 달아나는 헥토르에게 아테나여신은 데이포보스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헥토르에게 달아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조언한다.

# DANS LE CAMP TROYEN



## 카산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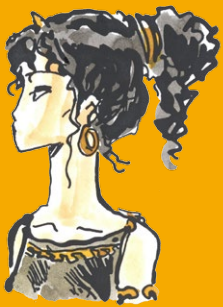
황금 아프로디테를 닮은 이 소녀는 프리아모스의 딸로 신성한 헬레노스와는 쌍둥이 남매이다. 아폴론 신은 그녀에게 푹 빠진 나머지 예언자의 재능을 주지만 이후 그녀의 거절에 화가 나 그녀에게서 설득력을 빼앗는다.

## 폴릭세네

프리아모스 왕의 딸. 범접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그녀에게 아킬레스는 한눈에 반한다. 트로이가 함락당한 후 처녀 폴릭세네는 네오프텔레모스에 의해 아킬레스의 묘에 재물로 바쳐진다.

## 아에네아스

헥토르 다음으로 용감한 인물로 등장한다.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아킬레스에 과감히 맞서 싸울 때도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 신들의 보호를 받은 그는 트로이 함락 전에 탈출한 몇몇 생존자들 중 하나이다.



## 안드로마크

슬픈 운명의 헥토르의 아내. 트로이를 둘러싼 원정 당시 그녀의 고향 마을은 아킬레스에 의해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일곱 형제 마저 떼죽음을 당했다. 헥토르와의 사이에서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낳았는데 이 아들 역시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 헬레노스

카산드라의 쌍둥이 남매. 트로이의 예언자인 그는 형 파리스의 그리스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언했다. 아폴론에게서 선물받은 상아 활로 아킬레스에게 상처를 입혔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실망이 트로이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Copyright © 2016, ATHENA Editions
*Droits de traduction et de reproduction réservés pour tous pays. Toute reproduction, même partielle, de cet ouvrage est interdite. Une copie ou reproduction par quelque procédé que ce soit, photographie, microfilm, bande magnétique, disque ou autre, constitue une contrefaçon passible des peines prévues par la loi du 11 mars 1957 sur la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ISBN 2-913314-21-X 9782913314214

**내 이름은 율리시스, 이타키의 왕 이다 !**

# 트로이의 목마

« 오, 초라한 나라에서 태어난 영웅이여,
고귀한 심장과 자부심에 찬 이름이 힘을 발휘하는 그대여,
아키이아 함대의 두뇌, 트로이 인들의 제압한 승자여,
라에르트의 아들이여. »

# 1

## «예언가 헬레노스가 알려준 지략 »

율리시스는 잠시 숨을 참았다. 어둠 속에서 네오프텔레모스와 그의 분노 섞인 숨소리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커질수록 심장은 더욱 단단해졌다. 아키이아인들의 무리에 섞여 아킬레스를 대신해서 이미 온 적이 있는 자였다. 지금부터 가공할만한 미르미돈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바로 그였다.

함정을 놓는다는 계획에 집요한 네오프텔레모스가 처음부터 찬성했던 건 아니었다. 그는 트로이를 함정이라는 계략이 아닌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만 싶었다. 무력이 아닌 지략을 쓴다는 것은 그가 볼 때 위대한 전사에게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다. 전사들이란 모름지기 전장에서 창을 꼿꼿이 들고 싸워야 하며 용감한 남자들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었다.

필록테트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전투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운명이 승자를 가를 수 있도록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설득에 강한 율리시스가 그들 못지 않게 용감무쌍한 병사들이 트로이의 장벽 앞에서 얼마나 죽어갔는지 설명하자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장 아홉 달 동안 온 군대가 동원되어 무수한 노력을 쏟아 부었어도, 패배를 모르던 아버지의 가치로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이었음을 율리시스는 네오프텔레모스에게 상기시켰다. 금발의 아킬레우스, 전사 중의 전사인 그도 트로이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저 비열한 트로이인 패리스와 알렉산드르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아폴론에게 이끌려 발목에 화살을 맞은 그는 그 상처로 더 할 수 없이 나약해졌다.

또한 율리시스는 아키이아인들이 트로이를 밀어붙이든, 트로이가 후퇴하는 아카이인들을 압박하든 간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지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필록테트와 그의 활에 서린 업적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의 높은 장벽은 넘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지 못했으나 트로이의 장벽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라오메돈(트로이이 창건자-역주)에게 항복할 때 건설한 것이었다. 전투에서 아키이아인들의 편에 선 짙은 푸른 눈의 신 포세이돈과 은빛 활의 신 아폴론은 이렇듯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잔인하게 맞섰다

그 때 예언자 칼카스가 아키이아 의회에 등장해 율리시스의 계획에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제우스 신의 중재가 두 남자의 고집을 꺾고 율리시스의 계획을 마침내 받아들이도록 했다.

새벽에 다시 모인 사람들은 트로이 장벽 아래 잔인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로지 지혜와 민첩함만이 인간들의 이 탐욕 어린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며, 호전적인 아키이아 인들이 프리아모스 왕의 풍요로운 도시를 무너뜨려 줄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킬레우스의 용감한 아들 네오프텔레모스는 거대한 말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감으로써 만방에 동의를 표시했다. 이타키 섬의 왕 율리시스와 메넬라우스가 그 뒤를 따랐다. « 아키이아인들 중 전투에 가장 강해 » 아킬레스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디오메데, 필록테트, 아작스, 데우칼리온의 아들이자 미노스의 손자 이도메네우스, 그리고 아레스 못지 않게 용감무쌍한 전사들이 차례로 영웅들 옆에 자리잡았다. 스무 명 남짓한 병사들 역시 거대한 말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마지막으로 말 속에 들어간 건 에페이오스, 아테나 여신에게 영감을 받아 트로이 목마를 만든 천재 예술가 에페이오스였다. 오로지 그 만이 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맡지 못한 에페이오스였지만 이제 신이 내린 장인, 에페이오스의 손길이야 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그에게 불멸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그가 타고 오른 사다리가 말 내부에서부터 끌어올려지자 이제 모두 말 속에 갇혔다.

에페이오스는 출입문 바로 옆에 웅크리고 앉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밤부터 지난한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만에 하나 적들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단 1퍼센트도 없다는 것 병사들은 전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율리시스의 계획이 성공하기만 하면 내일부터 그들이 곧 트로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병사들 한 명 한 명은 은밀하게나마 자신들의 운명에 자신이 있었고 특히 율리시스에 대한 막강한 신뢰가 있었다. 율리시스야 말로 트로이에 맞서 싸우는 아키이아 인들 중 가장 영리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 율리시스가 실수 한 건 단 한 번이었고 그나마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금발의 율리시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그는 다른 누구보다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밤새 동료들이 자는 동안 그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적들의 귀에 들려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는 걸 그는 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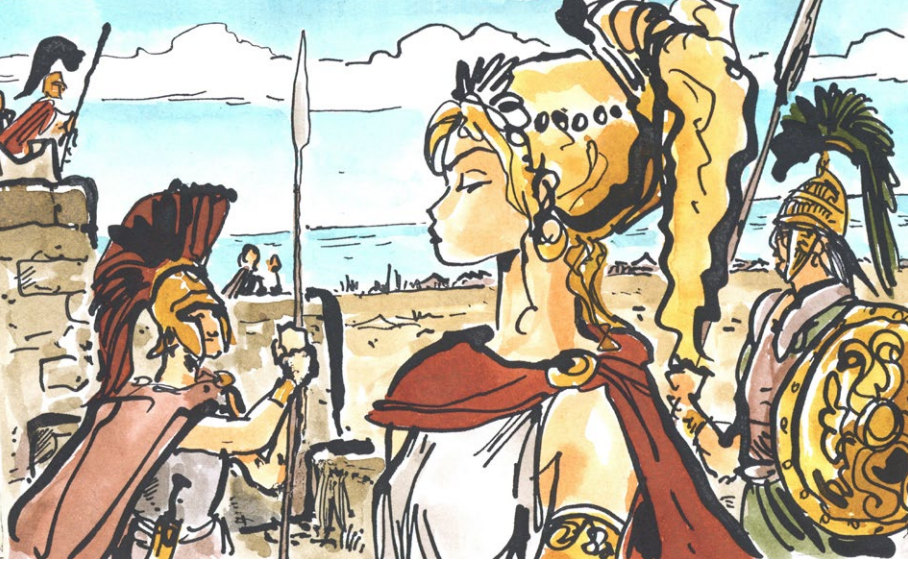
율리시스는 특히 잠이 들면 전쟁에 대하 스트레스를 말끔히 잊고 깊은 수면에 빠지는 디오메데스를 예의 주시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라 하면 금발의 아프로디테마저 다치게 한 가장 거침 없는 전사 중 하나가 아니던가 !

율리시스는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기 무섭게 트로이 인들이 목마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기도 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인 그는 모든 경우의 수와 그가 내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분석할 줄 알았다.

트로이가 점령당할 모든 조건들은 이제 만들어졌다. 필록테트는 예언자들이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준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가져왔다.

예전에 자신의 화형대에 불을 붙여준 영웅에게 감사의 표시로 남겨준 활과 화살이었다. 헤라클레스가 언젠가 히드라의 혈관 속에 담근 적 있는 바로 그 화살이었다.

필록테트가 부상당한 채 버려져 십 년을 혼자 살아야 했던 렘노스 섬을 율리시스가 디오메데스와 함께 찾아갔었다. 헤라클레스의 친구 필록테트는 결국 율리시스에 대한 분노를 감추고 트로이 전쟁에 함께 참가하기로 결심했었다.



영웅들은 승리를 위해 필요했던 펠롭스의 뼈를 먹었고 거지로 변장한 율리시스는 혈기 왕성한 디오메데스와 함께 마법을 지닌 신성한 동상 팔라디온이 있는 마을로 잠입해 동상을 훔쳐냈다. 고대 도시 이리온-트로이의 다른 이름-을 장악할 세 가지 선결 조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예언자 칼카스가 실수한 거라면? 아니면 트로이를 무너뜨릴 또 한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걸 잊은 거라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로 율리시스에게 트로이 목마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헬레노스가 그를 속인 거라면 ?

왜냐하면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헬레노스는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형 헥토르를 위해 용감히 싸워왔었다. 헥토르가 죽고, 모든 남자들을 눈멀게 한 절대 미모의 헬레네와 결혼할 수 없게 된 데 실망하여 트로이를 배신하게 된다...

파리스의 죽음으로 헬레네는 과부가 되자 헬레노스와 그의 형 데이포보스 둘 다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프리아모스 왕은 둘 중 전투에서 더 큰 업적을 세운 왕자에게 헬레네와 결혼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

데이포보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헬레네는 그를 네 번째 남편으로 맞는다. 너무나 깊이 절망한 나머지 헬레노스는 도시와 부모, 전쟁을 모두 져버리고 이다 숲의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 산에서 율리시스는 그를 포로로 잡아 트로이를 함락할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목마 작전을 얻어낸다. 그러나 그런 헬레노스가, 트로이를 함락할 날까지 받아준 헬레노스가 거짓말한 거라면 ? 만약 그의 배신이 한 가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면 ? 목마에 숨은 아케이아 병사들이 포로로 전락한다면 ?

율리시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절대 명상에 잠기기 위해 깊은 숨을 몰아 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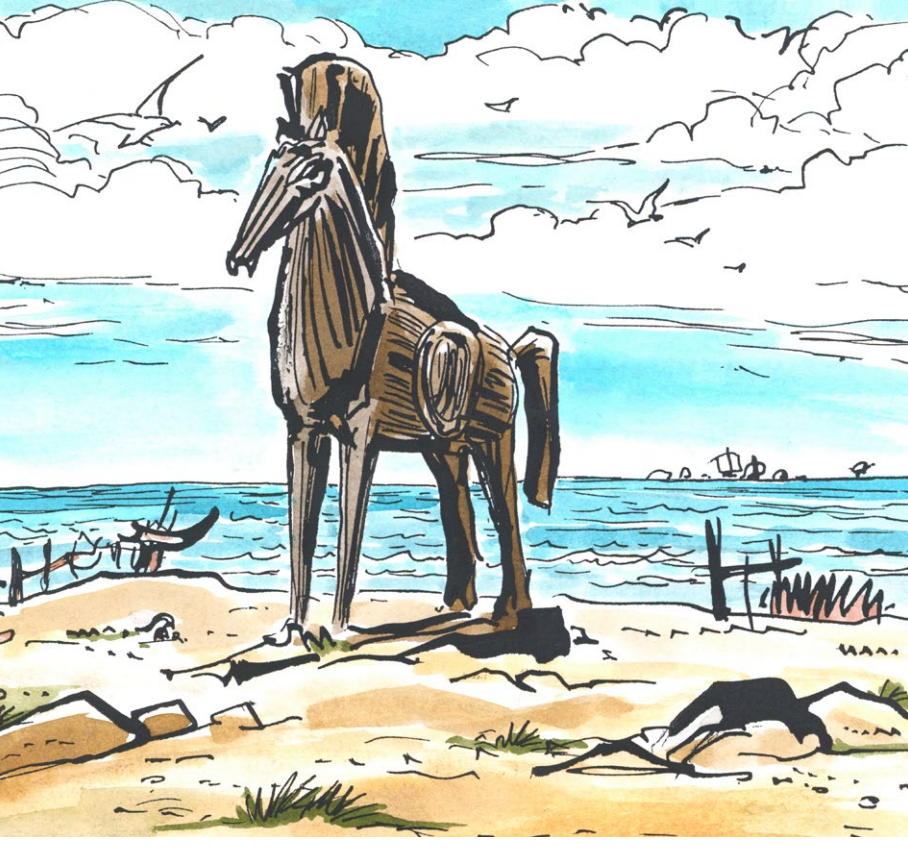
그리고 마침내 칼카스의 예언을 떠올렸다. 이 현명한 예언가는 전쟁이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선언했었다.

지난 9년 동안 전쟁은 지난하게 계속되었고, 이제 우리는 10년차를 맞았다....

아킬레스우스의 분노 이래 모든 상황은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았고 예언자 칼카스가 내려준 트로이 함락의 날은 예언자 헬레노스가 말한 날과 꼭 같았다. 그렇다면 그의 말을 믿어도 좋지 않을까 ?

거대한 목마가 냉혹한 운명이 만들어낸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목마의 뱃속에는 때로는 승리에, 때로는 죽음을 향해 웃으며,

그러나 마침내 이 전쟁의 전개를 목격하게 될 아키이아의 최고 전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거대한 목마가 냉혹한 운명이 만들어낸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그렇다. 인간의 모든 작품을 자신의 시선 속에 간직한 그 운명,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